

2019년 7월 2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미-중 대면 협상 소식으로 강세 미 언론 “29일 미국 무역협상 대표단 방중”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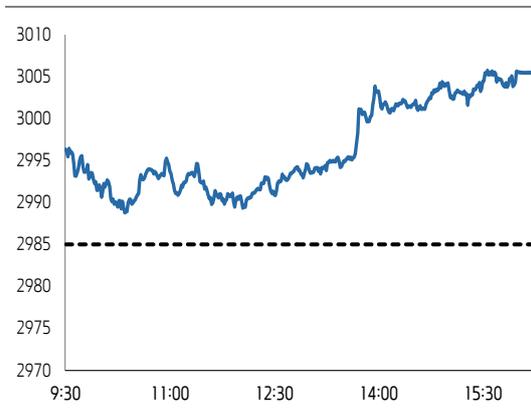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①기업들의 실적 ②미-중 대면협상

미 증시는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출발 했으나, 여전히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매물 출회되는 경향. 그러나 오후들어 미-중 무역협상팀이 다음주 대면접촉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 특히 산업재와 금융주 및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주도(다우 +0.65%, 나스닥 +0.58%, S&P500 +0.68%, 러셀 2000 +0.66%)

미 증시는 ①기업들의 실적 ②미-중 대면협상 영향을 받아 상승. 장 초반 코카콜라(+6.07%)와 바이오젠(+4.90%), 페인트 등 건축자재 업체인 셔윈-윌리엄스(+7.84%) 등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 출발.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79%에 달할 정도로 2 분기 실적 시즌 또한 양호한 모습. 그러나 12 개월 Fwd PER 이 17 배를 기록하는 등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차익 욕구 또한 높은 것도 사실. 그러다 보니 최근 경향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주변부로 매수세가 확산되지 않고,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주변부로는 매물이 확산되는 등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

그러나 오후 들어 미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 연체율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금융주가 상승을 이끈 점도 있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미-중 대면 협상 발표에 따른 기대가 유입된 점. 미국 언론들이 다음 주 월요일(29 일) 미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대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보도. 이번 협상 주체는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대표 등 고위급이며 이는 지난 5 월 초 협상 결렬 이후 처음. 그러나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님. 전일 이미 중국 언론들이 “다음 주 미국과 중국이 무역 관련 대면 협상을 열 예정” 이라고 보도 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보이는 요인은 최근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협상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 더불어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대 또한 이어가고 있어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유입되면 시장이 반응을 보이는 경향도 한 몫.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101.45	+0.39	홍콩恒生	28,466.48	+0.34
KOSDAQ	668.65	-0.91	영국	7,556.86	+0.56
DOW	27,349.19	+0.65	독일	12,490.74	+1.64
NASDAQ	8,251.40	+0.58	프랑스	5,618.16	+0.92
S&P 500	3,005.47	+0.68	스페인	9,281.60	+1.29
상하이종합	2,899.95	+0.45	그리스	869.64	+0.54
일본	21,620.88	+0.95	이탈리아	21,954.66	+1.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산업재 강세

인텔(+0.78%)은 적자사업부문인 5G칩 부문을 애플(+0.78%)에 10억달러에 매각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특히 애플도 좋은 인수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동반 상승 요인 이었다. 그러나 경쟁관계이자 애플에 관련 칩을 제공하는 퀄컴(-2.41%)의 경우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한편, 쿼보(+1.50%), 스카이웍(+1.53%), 브로드컴(+1.56%) 등과 마이크로칩(+2.15%) 등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승 했다. 다만 마이크론(-0.51%)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장 마감 후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텍사스인스트루먼트(+1.60%)은 시간 외로 6% 상승하고 있다.

코카콜라(+6.07%), 바이오젠(+4.90%), 셔윈-윌리엄스(+7.84%) 등은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다. JP모건(+1.83%), BOA(+2.30%), 웰스파고(+1.55%) 등 금융섹터는 신용카드 연체율을 비롯해 자동차 대출 연체율 등이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캐터필라(+2.11%), 3M(+1.65%), GM(+2.13%) 등 산업재와 자동차 업종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속에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01%	대형 가치주 ETF(IVE)	+0.85%
에너지섹터 ETF(OIH)	+1.32%	중형 가치주 ETF(IWS)	+0.93%
소매업체 ETF(XRT)	+0.52%	소형 가치주 ETF(IWN)	+1.01%
금융섹터 ETF(XLF)	+1.04%	대형 성장주 ETF(VUG)	+0.58%
기술섹터 ETF(XLK)	+0.55%	중형 성장주 ETF(IWP)	+0.5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5%	소형 성장주 ETF(IWO)	+0.43%
인터넷업체 ETF(FDN)	+0.12%	배당주 ETF(DVY)	+0.61%
리츠업체 ETF(XLRE)	+0.9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11%
주택건설업체 ETF(XHB)	-0.5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0%
바이오섹터 ETF(IBB)	+0.26%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62%	하이일드 ETF(JNK)	+0.18%
곡물 ETF(DBA)	+0.30%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1.11%	Long/short ETF(BTAL)	-0.6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7.32	+0.27%	+0.04%	+0.24%
소재	372.92	+1.99%	+1.51%	+2.61%
산업재	661.01	+1.24%	-0.15%	+1.97%
경기소비재	976.68	+0.58%	-1.09%	+3.46%
필수소비재	617.82	+0.63%	+0.10%	+2.10%
헬스케어	1,065.93	+0.62%	-0.04%	-1.28%
금융	469.93	+1.14%	+0.78%	+4.25%
IT	1,440.39	+0.55%	+1.74%	+4.58%
커뮤니케이션	166.27	+0.30%	-2.61%	+0.31%
유틸리티	303.77	-0.61%	-1.03%	-1.90%
부동산	229.88	+1.02%	-1.28%	-1.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세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보합을,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2%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397 계약) 여파로 0.05pt 하락한 276.4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8.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은 전일 중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5 월 초 고위급 협상 결렬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립 이상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다.

한편, 트럼프가 IT 기업들의 CEO 들과의 회담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판매 금지를 완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도는 긍정적이다. 특히 중국 언론이 이러한 진전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양측의 진실성과 선의를 표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환영한다” 라고 보도하는 등 미-중 무역협상 낙관적인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3% 강세를 보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간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텍사스인스트루먼트가 시간외로 6% 상승하는 등 실적 개선 및 전망 상향 조정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 및 제조업지표 부진

7 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536 만건)이나 예상치(532 만건)을 하회한 527 만 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7% 감소하고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주택지표는 둔화되었다. 고용이 안정과 모기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택가격, 낮은 재고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7 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2)나 예상(5)를 크게 하회한 -12 를 기록 했다. 이는 6 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2→-18), 출하지수(5→-13), 고용지수(4→-3) 등 대부분이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강세 확대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상승 했다. 더 나아가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보고서에서 원유재고가 크게 감소할 것 이라는 전망도 상승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의 부채상한한도 협상 타결과 유로화와 파운드화 약세 영향을 받아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온건한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선출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국채금리는 미국의 제조업 및 주택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장 초반 상승 요인은 미 의회의 부채상한한도 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이 후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유입되며 재차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국 오늘 미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주요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2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2.62 배)를 하회한 2.58 배를 기록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23%, 철근도 1.11% 하락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77	+0.98	-1.68	Dollar Index	97.732	+0.49	+0.35
브렌트유	63.83	+0.90	-0.81	EUR/USD	1.1147	-0.55	-0.57
금	1,421.70	-0.36	+0.74	USD/JPY	108.24	+0.34	0.00
은	16.476	+0.40	+5.09	GBP/USD	1.2437	-0.31	+0.24
알루미늄	1,816.00	0.00	-1.84	USD/CHF	0.9856	+0.37	-0.23
전기동	5,968.00	-0.82	-0.73	AUD/USD	0.7003	-0.47	-0.13
아연	2,436.00	+0.79	-1.85	USD/CAD	1.3144	+0.19	+0.43
옥수수	431.50	+1.11	-2.21	USD/BRL	3.7761	+0.95	+0.19
밀	487.25	0.00	-3.99	USD/CNH	6.8848	+0.01	+0.05
대두	903.75	-0.22	-0.25	USD/KRW	1178.90	+0.05	+0.11
커피	102.30	-2.66	-3.08	USD/KRW NDF1M	1178.77	+0.26	+0.01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079	+3.30	-2.32	스페인	0.390	+0.20	-9.70
한국	1.472	+1.00	-9.80	포르투갈	0.454	-0.30	-9.40
일본	-0.142	-0.60	-2.30	그리스	2.037	-5.90	-18.80
독일	-0.355	-0.90	-11.10	이탈리아	1.600	-5.10	-1.00